

여수세계섬박람회 독특·차별화 콘텐츠로 꾸민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사업비 212억원이 투입되는 비공인 국제행사로 여수시와 전남도가 함께 치르는 행사다. 30여 개국의 해외 참가와 200만 명 이상의 관람객, 6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4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예상된다. 여수시 제공

여수가 오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로 또 한 번 도약을 꿈꾼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섬박람회는 오는 2026년 7월17일부터 31일간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관내 도서지역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총사업비 212억원이 투입되는 비공인 국제행사로 지자체인 여수시와 전남도가 함께 치르는 행사다. 30여 개국의 해외 참가국과 200만 명 이상의 관람객, 6000명 이상 고용창출, 4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예상된다. 주최와 예산, 개최기간 등 규모면에서는 이전 엑스포에 비해 훨씬 작지만 여수 시민들의 바람은 절대 적지 않다. 엑스포를 성공 개최한 경험이 있는 여수 시민들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성공 개최해 여수가 진정한 전남 제1의 도시,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로 우뚝 서길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가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밀그림 '막바지 작업'...6월 최종 마스터플랜

섬이란 독특한 소재만큼 섬박람회 마스터플랜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는 가운데, 지난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가 열렸다. 회의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전문가자문단, 관계 부서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 보고, 자문의견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시의회와 시민 설명회,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최종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 14일에는 섬박람회 성공개최 시민역량 결집을 위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범시민준비위원회는 섬박람회 개최연도 의미를 담은 '226명'으로 구성됐다. 정계와 재계,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 20대에서 80대까지 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정책기획 △시민활동 △대외홍보 △섬가꾸기 등 4개 분과별 실행과제를 수행하며 시민역량을 결집할 민간차원의 행사를 개최한다. 사전 불입을 위한 대내·외 홍보와 관람객 유치 활동도 동점한다.

오는 12월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어서 행사장 기반시설 설치와 실행계획 수립, 콘텐츠 세부 연출 등 분야별 계획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섬박람회 업무를 전담할 '섬박람회지원과'를 신설, 섬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최초 '섬' 소재 박람회, 차별화로 승부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난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심벌과 캐릭터 등 EI(Event Identity)를 최종 확정하면서 "최첨단 기술과 AR(증강현실) 등 독특하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아 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섬'이라는 독특한 소재만큼 차별화된 박람회가 될 전망이다.

LED사진 큐브와 홀로그램, AR(증강현실), 인터랙티브 미디어(동작 인식), 미니처 등 IT강국다운 최첨단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돌산읍 진모지구 주행사장과 비렁길로 유명한 남면 금오도, 개도 부행사장으로 나뉘어 전시와 공연, 체험행사 등이 펼쳐진다. 콘텐츠 등 마스터플랜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13일 열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전시관별 구성·연출 등 480여개의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아직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변경 가능성은 있다.

전시관은 주제관과 섬생태관, 섬문화관, 섬마켓관, 섬공동관, 섬미래관, 해상교량관 등 7개로 구분되며, VR과 AR 이머시브 미디어 터널, LED 그래픽 사이니지, 미디어 인터랙티브 등을 통한 초현실체감형으로 구성된다.

세계의 섬과 국내 섬, 여수 365개의 섬을 표현함과 동시에 바다를 시작으로 섬의 무한한 가치를 담은 주제를 충실히 구현할 예정이다. 특별공연장과 섬놀이터를 포함하는 행사 체험관은 별도로 구성된다.

체험 콘텐츠로는 섬 국가별 스페셜 데이 운영을 통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섬놀이터 야외공간을 통한 해양 레저스포츠와 힐링 아일랜드 호핑투어, 어촌뉴딜사업과 연계한 섬주민 어업체험 등 모든 세대가 직접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담을 예정이다. 2012여수세계섬박람회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학술행사도 열린다. 섬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섬포럼'과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글로벌 섬 정책 개발을 위한 '섬 진흥원과 함께하는 학술 행사' 등이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8월8일 '섬의 날' 행사도 섬박람회장에서 개최된다. '섬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세계섬박람회를 통해 그 무한한 가치를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알릴 예정이다. 콘텐츠는 수정, 보완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내외 홍보 '본격 시동'

섬박람회 준비에 분주한 가운데 정기명 여수시장과 김영규 여수시의회의장은 최근 여수시 대표단을 꾸려 미국 홍보에 나섰다. 9박10일간 뉴포트비치와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요 도시를 강행군하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3년 밖에 남지 않은 섬박람회 홍보에 본격 시동을 건 모습이다.

시는 매체별, 시기별, 세대별로 세분화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전 세계 관람객 유입을 위한 홍보계획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 개발, 메타버스와 SNS챌린지, 셉템, 인플루언서 등 콘텐츠 구축에 힘쓰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통해 섬의 가치와 잠재력을 발견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섬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며 "관광객들에 여수의 섬들이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기자

2026년 7월17일부터 31일간 '섬, 바다와 미래 잇다' 주제 세계 최초 '섬' 소재 박람회 여수시, 6월 마스터플랜 수립



1 오는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가 7월17일부터 31일간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관내 도서지역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30여개 국 200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조감도.

2 정기명 여수시장과 김영규 여수시의회의장은 최근 여수시 대표단을 꾸려 미국 홍보에 나섰다. 9박10일간 뉴포트비치와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요 도시를 강행군하며 홍보에 나섰다. 여수시 제공

